

Jewish Passover celebrated Israel’s redemption by God, from slavery in Egypt. On the night before they departed, the Jews slaughtered a one-year-old spotless lamb. The blood of the lamb was then applied to the doorframes of their houses. At midnight, the LORD struck down all the firstborn in Egypt. But where He saw the blood of the lamb there was no death in that house.

Come forward in time, nearly 1500 years. Jesus’ disciples are about to prepare the Passover meal. But many events have prepared us for that evening. Listen to the words of John the Baptist, spoken very early in our Lord’s ministry. John said (John 1:29),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Mark 3:6 records another very early event. **Then the Pharisees went out and began to plot with the Herodians how they might kill Jesus.** Once enemies, the Pharisees and Herodians were now united in hating the Lord Jesus. They hated Him enough to kill Him.

유대인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유대인들은 한 살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들 집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날 자정,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의 1500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그 날 저녁을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3 장 6 절은 초기의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한때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이제 주 예수에 대한 증오로 하나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In Matthew 26:3 we find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plotting to arrest Jesus. Within a few days they’d have had Him arrested, beaten and crucified on a Roman cross.

Even worse, in the last few days before the Lord’s suffering and death, His own friends betrayed Him. Judas, one of the Lord’s disciples, betrayed Jesus to the chief priests. Matthew 26:14-16, **Judas Iscariot—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aske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hand him over to you?” So they counted out for him thirty silver coins. From then on Judas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Thirty pieces of silver isn’t much for this betrayal of Jesus. It was the value of a slave accidentally gored to death by a bull (Exodus 21:32). Matthew will later reveal (27:3-10) that this fulfils the prophecy in Zechariah 11:12, **they paid me thirty pieces of silver.**

마태복음 26 장 3 절에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모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며칠 안에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때리고, 로마의 십자가에 못박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예수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14-16,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은 삼십은 예수를 배신하는 것치고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가 사고로 남중이나 여중을 받아 죽게 했을 때 지불하는 정도의 값어치였습니다 (출애굽기 21:32). 마태는 후에 이것이 스가랴 11 장 12 절의 예언 말씀을 -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 이루는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27:3-10).

We might wonder if Judas ever believed in the Lord. Did you notice how he speaks to Jesus? Compare what he says with what the other eleven disciples say. 26:21 sets the scene for us.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Listen to the eleven disciples’ response. (26:22), **They were very sad and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the other, “Surely not I, Lord?”** Note what Judas says. 26:35, **Then Judas,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said, “Surely not I, Rabbi?”** In Matthew’s Gospel the eleven disciples never call Jesus, Rabbi (teacher). Judas does not call Him Lord. Later, Judas betrays the Lord Jesus with a kiss. Again he calls Him Rabbi (26:49). Matthew 10:2- 4, warns us that the Lord’s disciples include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Judas never believed in Jesus. He probably thought of Him as a good teacher, but not his Lord and certainly not his Lord and Saviour.

It's much the same for many people today. A true believer calls Jesus, Saviour and Lord. Meanwhile, many people see Him merely as a great teacher. Anyone who studies His teaching would do that.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are a Christian.

유다가 한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께 말하는 태도를 보셨습니까? 유다가 하는 말과 다른 열 한 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비교해보십시오. 26 장 31 절은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다른 열 한 제자들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26: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26 장 35 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에서 다른 열 한 제자들은 절대 예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후에 유다는 입을 맞추고 주 예수를 배신합니다. 또다시 유다는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26:49). 마태복음 10:2-4 절은 예수의 제자들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포함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유다는 한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를 좋은 선생으로 생각했겠지만, 그의 주님 혹은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부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위대한 선생으로 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What does the word Christian really mean? You might say that it means you trust in Christ. You've received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True! But the '-ian' ending interests me. It indicates that we belong to Christ. We're to be like Christ, to show His character. And we can only express the true nature of Christ in union with Him. That's how the Apostle Paul speaks of his new life in Christ. Galatians 2: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Have you and I ever betrayed the name of Jesus? We do, every time we take His name in vain. Every time we sin with our thoughts, words and deeds we betray Him. John speaks about this in his first letter. 1 John 2:16, ***For everything in the world—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ian'이라는 어미가 저의 관심을 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비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에 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 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Praise God, we have hope. And our hope is centred on Christ. Yes, we sin and fall short of God's glory. But, as we heard in our Easter message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ce—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1 John 2:2). Again, we read in Romans 8:34, ***Christ Jesus,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The events surrounding these last days before the Lord's death don't catch Him by surprise. Matthew 16:21,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We hear this prediction again on the lips of Jesus, in chapters 17, 20 and 26.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절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2). 또한, 로마서 8 장 34 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 예수의 죽음 전 이 마지막 며칠을 둘러싼 사건들은 예수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 장 21 절,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예언은 17 장과 20 장, 그리고 26 장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됩니다.

Jesus knows that He fulfils God's plan and purpose. Listen to His words. Matthew 20:28, **"...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Rightly, the Apostle Paul sees the coming of Christ as the fulfilment of God's eternal plan. Galatians 4:4, 5, **But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law, to redeem those under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full rights of sons.**

In Matthew 26:21, 22 the disciples protest their innocence concerning His betrayal. Even Judas protests. What was Judas thinking? He'd just heard the Lord (26:23) narrow down His prediction concerning His betrayer. **"The one who has dipped his hand into the bowl with me will betray me."** Judas must know what he has done. Can you betray someone, as Judas did, and not know it?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 장 28 절,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연하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4:4, 5 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21,22 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유다조차 이를 주장합니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직전 주 예수께서 (26:23) 주님을 파는 것에 관해 범위를 좁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유다가 한 것처럼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The Lord's next words ought to have cut into his heart. Jesus says (26:24),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But where does Scripture prophecy Judas betraying Jesus? Psalm 41:9. **Even my close friend, whom I trusted, he who shared my bread, has lifted up his heel against me.** And yet Judas protests, **"Surely not I, Rabbi?"**

Yet, the other disciples also betrayed Jesus. In Matthew 26:31 (quoting Zechariah 13:7), the Lord told them that they would all desert Hi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Jesus would suffer and die alone. Yes. Two others were crucified with Him. But they were at arms' length, beyond His reach.

주님의 다음 말씀이 그의 마음 속을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6: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구약의 어디에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시편 41: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유다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마태복음 26 장 31 절에서 (스가랴 13:7 을 인용하며), 주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고통 받고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못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Meanwhile, Peter vows that he'd never betray Jesus. 26:33,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The Lord answered (26:34-35), **"I tell you the truth...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All of them disowned Him. In Matthew 26:56b, at the time of Jesus' arrest, we read, ***all the disciples deserted him and fled.*** Very soon we read (26:69-75) that Peter denied knowing Jesus, three times. By the end of that day (Good Friday), the Lord Jesus had been crucified. He was dead and buried.

Have you seen a picture of a cyclone taken from above? Looking down on it you can see the mass of clouds swirling around the eye of the storm. Yet, if you stood in the eye of that cyclone you'd see blue sky directly overhead. No clouds. The cyclonic winds are furiously strong. But in the eye of the storm the wind is gentle and silent. However, when the eye passes from you, the full blast of the storm hits you again. Any damage done, as the eye approached you, is now even worse as the wind builds up once more.

한편,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26 장 33 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26:34-35),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56b 를 보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이어 (26:69-75)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날이 끝날 무렵 (성 금요일), 주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는 죽었고 묘지에 묻혔습니다.

위쪽에서 찍힌 사이클론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이클론을 내려다보면, 태풍의 눈 주변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구름 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론의 눈 가운데 서있다면, 머리위로 파란 하늘을 볼 것입니다. 구름은 없습니다. 이 사이클론의 바람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안에 있으면, 바람은 잔잔하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 지나가면, 폭풍의 엄청난 바람이 다시 여러분을 몰아칩니다. 폭풍의 눈이 다가올 때 어떤 피해가 있었다면, 이제 바람이 다시 한번 강력해지면서 더욱 심한 피해가 있습니다.

The Lord Jesus is enduring the full fury of a cyclone straight from Hell. We have a picture of the agony that He endured, in Matthew 26:38-39. With three of His disciples He has gone into Gethsemane. Matthew tells us of His sorrow as He speaks to these three disciples. 26:38,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Jesus' prayer, in 26:39, again pictures His agony.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Matthew has painted the picture of the Lord's suffering almost from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up until His death on the cross. The storm clouds have been gathering for about three years. The cross cannot be avoided. God's eternal plan for Jesus was for Him to suffer for us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ll for our salvation. 1 Peter 3:18a, ***For Christ died for sins once for all,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And again, in 2 Corinthians 5:21,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주 예수는 지옥에서 온 격렬한 사이클론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38-39 절에서 예수께서 견디셨던 고통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세 명과 함께 예수께서 겔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이셨던 그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6 장 38 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26 장 39 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고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는 예수 사역의 거의 초기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 받으시는 주 예수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태풍의 구름이 거의 삼 년 동안 몰려왔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고 셋째 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18a 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다시, 고린도후서 5 장 21 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Do you want to know how much God loves you? Look at the cross. There,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because He loves you. And Jesus the Son loves you so much that He is prepared to suffer and die for you. 1 John 4:9,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Jesus is ready to drink the cup of suffering for you and for me. Yet, you'd think that His approaching death would consume Him.

Jesus ought to have been terrified. But then we see into the eye of the storm that surrounded Jesus. He isn't afraid, hiding under a table. He's giving His disciples a visible symbol of the meaning of His death. It's as if heaven has opened for them. The Lord will reveal what it means for Him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요한 1서 4:9 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컵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다가오는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둘러싼 폭풍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책상 밑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상징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열린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준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The disciples, and you and I, now see God's grace in the Lord's last supper. The Lord's body will be broken for us. His blood will be shed for us. Matthew 26:26,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What is Jesus saying? His body will be broken, just as He has broken the bread. Yet it's not just that His body will be broken. The bread has to be taken. One preacher noted: 'As closely as it is possible for bread to eaten and become part of us, that's how close the death of Jesus must be for us. It must be part of us and we are part of it.' The Apostle Paul write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s the Lord's body is broken we are united with Him in His crucifixion. Our union with Christ now shapes our lives. It transforms us into His image and likeness. And so Paul continues,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의 몸이 우리를 위해 쪼개어 질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6 장 26 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빵을 떼어 준 것처럼, 그의 몸이 쪼개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쪼개어 질 것은 그의 몸 만이 아닙니다. 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 설교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빵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그 빵과 같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서 못박히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계속 적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Later, the Lord Jesus took the cup of wine and said (26:27b-28a),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A godly Jew would recoil from these words. In the Old Testament they've been told not to eat or drink the blood (Leviticus 17:10-12). If they were to drink the blood they'd be cut off from the covenant people. But now, the Lord Jesus says,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Quoting the preacher again, 'As closely as it is possible for wine to become part of you, that's how close Christ's blood needs to be. That's the only way the blood of Jesus Christ will cleanse you from all sin.' His body is broken for you. His blood is poured out for you. And now the Lord Jesus tells us four things about His blood.

후에, 주 예수께서 와인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26:27b-28a),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경건한 유대인은 이 말을 듣고 몸을 사릴 것입니다. 구약은 그들에게 피를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10-12). 만일 그들이 피를 마신다면 언약의 백성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앞서 말했던 한 설교자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우리가 마신 와인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몸이 여러분을 위해 떼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위해 부어졌습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 그의 보혈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28a,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These words take us back to Exodus 24. There, God confirmed 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Israel. In confirming the covenant, Moses sprinkled the altar with half of the blood of the sacrifices. The Book of the Covenant was read to the people. But how did God seal the covenant He made? Exodus 24:8a, **Moses then took the bloo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that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With the Lord Jesus, a new covenant is being made by God with His people. It’s a new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Blood will seal that covenant, the blood of Jesus, **“...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26 장 28a 절,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 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인으로, 모세는 화목제의 피를 가져다 그 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언약서가 백성들에게 낭독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봉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4:8a,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언약을 봉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Second, in Matthew 26:28,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is takes us back to servant song in Isaiah 53:11, 12, **by his knowledge my righteous servant will justify many, and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For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de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The Lord’s body was broken and His blood poured out for many, for sinners just like you and me. And it wasn’t just for a few, but for us, who have betrayed the name that we bear. It’s for those who gossip, for those who take the Lord’s name in vain, for covetous people, for those who slander others,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sin against God. And that’s good news. It’s the grace of God revealed to us in the eye of the storm that the Lord Jesus endured for us.

둘째, 마태복음 26장28절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이사야 53:11, 12절의 종의 노래를 상기시키는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많은 죄인들을 위해 주의 몸이 쪼개지고 그의 보혈이 부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단지 몇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이름을 배반했던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들, 헛되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셨던 폭풍의 눈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ird, we rebels can know forgiveness of our sins. Isaiah 53:5,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The blessings of the new covenant revealed in Jeremiah 31:34b are ours: the LORD says,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The Lord Jesus died to take away your guilt and your shame. He died for many, sinners like you and me. He died to set you free. 1 John 1:7, **the blood of Jesus... purifies us from all sin.** In Christ you are a new creation (2 Corinthians 5:17). And as we come to Lord’s Table, as we take the bread and drink the cup, we recall that Christ’s death was for you and for me. We say, with Paul, (Galatians 2:20 again),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셋째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 31:34b에 적힌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많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1서 1:7,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17). 또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e Lord’s final point is in Matthew 26:29. *“I tell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day. On that day we shall rejoice in the One who died to save us from our sins. We shall be with the One we read about in Revelation 19:16.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this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Until the return of Christ, Christians gather together for the Lord’s Supper. We come to remember His death and to look forward to His return. In a spiritual sense the taking of the bread and wine is to feed on Christ. The bread and wine are just that, bread and wine, yet they signify Christ’s presence. To quote from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9.VII), **spiritually [we] receive and feed upon Christ crucified, and all benefits of his death.**

주님의 마지막 요점은 마태복음 26:29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16에 기록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크리스천들은 성찬식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빵과 와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빵과 와인은 말 그대로 빵과 와인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29.VII) 인용하자면, **영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혜택을 받고 그것을 먹고 삽니다.**

Here then is good news for unbelievers, including the proud and the arrogant, the brutal and the homicidal, the unjust and the merciless, the warmongers and the persecutors. 1 John 1:7, *the blood of Jesus... purifies us from all sin.* Yet the gift must be received. Sinners must personally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Then, and only then are we forgiven and invited to the Lord’s Table.

This is such good news for Christians. Friends, far too often we fail to love God with all of our hearts and love our neighbours as ourselves. So it is vital for believers to come together, to join in the Lord’s Supper, and to do so frequently. As the Apostle Paul reminds us (1 Corinthians 11: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Amen

그렇다면 여기에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 잔인한 자와 살인자, 불공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 전쟁을 도발하는 자와 박해자를 포함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1서 1:7,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그 선물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개인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용서받고 성찬대로 초대받습니다.

이는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에 참여하며,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